

함께하는 사람과 하고픈 일이 만나는 회원 활동

- 정지윤 회원을 만나다

이숙견 상임활동가

‘회원 이어말하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을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번 6월호 <일터>가 만난 주인공은 지난 호 이어말하기 주자인 김형렬 회원이 추천한 정지윤 회원입니다.

네 번째 ‘회원 이어말하기’ 인터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회원 정지윤입니다.

원래 대구 지역 출신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서울이 고향인데, 의학전문대학원을 경북대학교로 오면서 대구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턴과 전공의 과정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였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 근로복지공단 대전 병원과 대구 병원을 거쳐서,

2025년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는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업무를 주로 하다가, 지금은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 대행사업,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와 함께 직업병안심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직업환경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의대에서 보편적인 신체에 어떻게 질환이 발생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늘 한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모두 갖고 계신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불건강’이 사회적 계급과 맥락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직업환경의학

은 ‘건강이 개인적 요인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학문이라서 관심을 두게 됐고, 전공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구가 2017년 택시 노동자 연구였어요. 그동안 책으로만 배웠던 장시간 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의 건강 영향, 노동법과 제도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과 작업환경 문제, 현장을 알게 해준 연구 과정이 제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택시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소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어느 순간 연구소와 너무 많은 연구나 활동을 하고 있는 저를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연관되고, 하고픈 일과 이어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연구소 회원으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이하 젠더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고 계신 여러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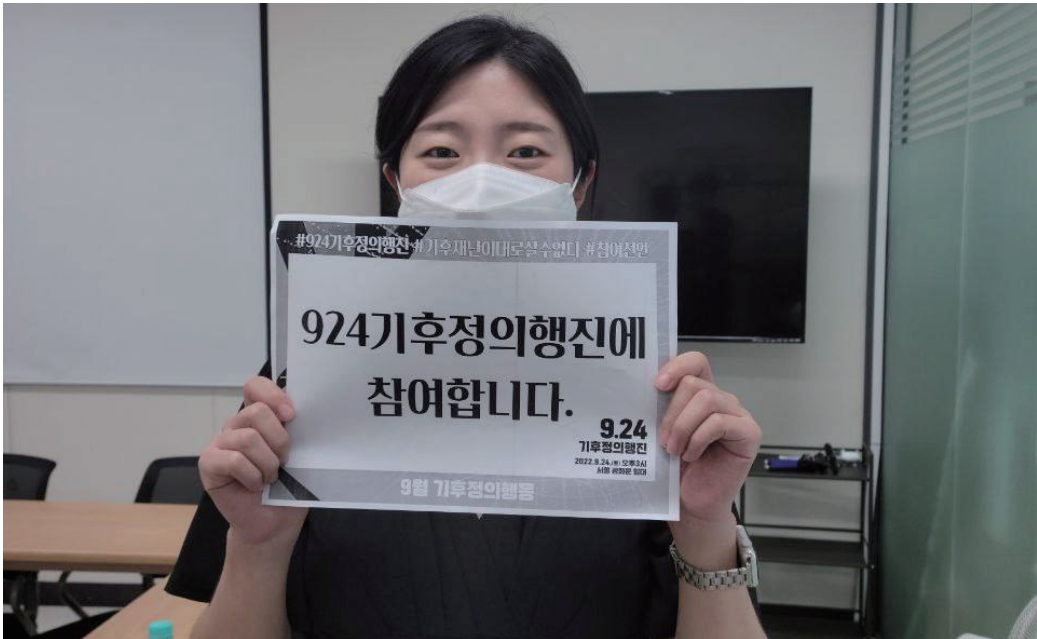
젠더센터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젠더센터를 만들자’ 하는 목표였다기보다 ‘책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센터까지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젠더센터에는 네 개의 팀이 있어요. 퀴어팀, 위험성평가팀, 이주여성건강권팀, 돌봄팀인데요, 지금 제가 가장 의욕적으로 하는 활동은 젠더센터 내 위험성평가팀입니다. 제가 팀장이고 청소 노동자, 프리랜서, 연구원, 의료인, 건설노조 활동가 등 다양한 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위험성평가를 노동자가 적극 참여해서 하는 현장이 많지 않고,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는 훨씬 드물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은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현장과 만나서 젠더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다행스럽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코웨이코디코닥지부와 함께 ‘가전방문노동자의 노동환경실태조사’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어요. 현재 사전 면접조사에 이어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고, 6월 중에 결과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노동조합과 연구진이 함께 살펴본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해 보고, 이에 기반해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케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이하 매노칼럼)의 필자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매노칼럼 필진으로 함께 한 지 일 년이 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걸 써도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다양한 주제로 4-5주에 한 번씩 글을 써야 하는데, 하다 보면 시의성이



▲ 2023년 924 기후정의행진 인증샷 참여 모습. 사진 : 한노보연

있는지 고민될 때도 많고요. 시의성 있는 새로운 주제를 찾다 보면 그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필요한데 아는 것이 너무 얕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아서요.

매노칼럼 누가 보나 싶기도 했는데, 최근에 칼럼을 보고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교육 의뢰 요청이 오기도 했어요. 외래 진료 받으시는 분이 칼럼 잘 읽었다고 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매노칼럼을 통한 확장성을 느끼게 되어 '잘 해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매번 하나의 완결된 글로 고민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함께한 연구소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학교급식노동자, 방문노동자처럼 업무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많은 업종의 연구 과제를

했을 때 만났던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일이 매우 힘들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자기 일을 좋아하고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연구소의 연구가 이들의 노동을 덜 힘들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하는 가전 방문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연구소가 더 집중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에는 안타깝게도 젠더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공정'을 얘기하지만 '젠더'는 잘 감추는 것이 전략이 된 거 같아요. 노동조합의 위험성평가 고민에도 젠더는

빠져 있고요.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에서 제 안하고 있지만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연구소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내규도 중요하지만, 연구소 활동 곳곳에서 젠더 관점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의식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중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연구소 독자 연구 공모에서 여성/젠더 건강 연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긴 한데, 이를 넘어 성인지적 연구 여부가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은 연구소 사무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활동하면서 아쉽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연구소가 사무실이 없는 지역 회원에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부당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만날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노동조합과 함께 대응하면 좋았을 사례도 있었어요. 이번에 가전 방문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만나고 연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위험성평가팀의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유실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젠더센터 활동, 매노칼럼 등 여러 통로로 연구소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구처럼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연구소 차원에서 작은 네트워크나 모임을 운영



▲ 정지윤 회원 사진 : 정지윤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근 지역인 부산, 충청 지역 등과 교류를 넓혀나가는 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어떤 활동 계획이 있나요?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에서 작년에 긴 시간 여성 관련 연구를 살피고, 제도 변화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연구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연구를 젠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해당 연구가 여성 노동자 건강권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소는 여성 건강권을 어떻게 조망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는 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신규 노무사 대상 강의 요청이 와서 한 달 동안 교안 작업을 하었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 자료를 만들어놓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